

2017.4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7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7.4.25	대전MBC 대회의실	8/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신종성, 박정훈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3	5	-	1	9	-	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7	2	-	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건	10건	3, 4월
교양	정보프로그램 초대석 코너에 다양한 주제로 구성해주길	“아침이 좋다” 초대석 코너에 자녀교육, 부부문제, 생활법률, 건강음식 등 전문가 초대하여 제작	4월
교양	토크프로그램 구성상 단순한 토크 이외에 자료화면 사용이나 스튜디오에서 방청객과 함께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토크프로그램 재즈기타 전재열(4/9) 스튜디오에서 연주, 손가락화가 오치호(4/30) 스튜디오에서 작품 설치 소개 등	4월
편성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프로그램 띠편성도 바람직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노래로 본 한국현대사 인생 한곡 나의 노래’ 3월 27,28, 29일 연속적 띠편성	3월
보도	전통시장 활성화 집중보도	뉴스데스크(4/17) 전통시장 활성화 보도	4월
보도	영상 자료화면 출처를 밝히도록	교통사고 <화면제공: 천안동남소방서>와 같이 출처 밝힘	4월
기타	대전MBC 편성규약 관련 개최여부 등 홈페이지에 게시필요	편성규약 개최일자, 관련 내용 등 홈페이지에 게시함	4월
보도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오래된 미래, 작은 학교’ 마을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으면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오래된 미래, 작은 학교’ 2부(4/3)에서 다룸	4월
교양	금강보호캠페인 내용 중 ‘물 부족국가’ 표현 시정을	금강보호캠페인 내용 변경하여 방송	4월
보도	특화된 과학 전문기자 양성	한국언론재단 과학저널리즘 연수, 과학저널리즘 박사과정 중인 기자, 연구단지 출입기자 전문화	4월
보도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오래된 미래, 작은 학교’ 1부 제작 시 배경음악 너무 강해 전달력 다소 미흡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오래된 미래, 작은 학교’ 2부 제작(4/3) 배경음악 적절하게 배합함.	4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6. 5. 31.~2017.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정민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과학기술단체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람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과학기술단체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박정훈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4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일반적으로 특집 다큐멘터리의 성향을 보면, 제목에서 풍기는 무게가 시청자들에게 무언의 압박감을 준다. 다큐멘터리의 결론을 꼭(?) 안겨주려고 한다.</p> <p>이런 류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면 시청자들은 긴장하게 된다. 때론 시선을 돌리기도 한다. 될 수 있으면 여러 계층의 시청자들이 함께 하는 다큐멘터리면 더 좋겠다.</p> <p>K본부의 일요일 밤 '다큐멘터리 3일'은 그래서 시청하기에 편하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p> <p>우리 이웃의 이야기이고,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story이기 때문이다.</p> <p>카메라의 앵글도 자유롭다. 3일, 72시간의 있는 그대로를 담는다. 이런 다큐에 시청자들은 화면을 고정한다.</p> <p>지난 3월27일부터 3일간 연속 방송된 대전 mbc 특집 다큐멘터리 '노래로 본 한국 현대사 < 인생 한국, 나의 노래>'는 위에서 언급한 '다큐 3일'을 연상케 했다.</p> <p>우선, 로컬 프로그램 편성의 제약으로 2부작, 3부작의 특집 다큐멘터리는 1주일 간격으로 편성되면서 연속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청자도 인내심을 가져야 했다. 이번 '인생 한국 ~' 특집 다큐멘터리는 3부작을 3일 연속, 같은 시간대에 편성, 기존의 틀을 깨뜨리면서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시청자들을 묶어 두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p> <p>1부 시절을 위안하는 선율, 2부 자유를 외치던 멜로디, 3부 당신의 삶은 한 소절 노랫말이 되어, 이 소 제목에 위에 '노래로 본 한국 현대사'의 대 제목은 다소 부담을 주기도 했지만,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로 시작해서 봄여름가을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로 끝난 특집 다큐멘터리 '인생 한국, 나의 노래'는 시청자들에게 긴 여운을 남긴 듯하다.</p> <p>베이비 붐 세대가 이번 특집 다큐멘터리의 중심에 있었지만 폭 넓은 층에게 어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현대사의 기록들이 바로 우리의, 나의 이야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익숙했던 노랫말과 멜로디 속에 담</p>	<p>특집 다큐멘터리 '노래로 본 한국 현대사 인생 한 곡, 나의 노래'는 80, 90년대 격동의 시대를 온 몸으로 부딪힌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위로이자 전 세대를 아우르는 희망의 메시지다.</p> <p>대중가요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바로미터이다. 대중가요에 투영된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p> <p>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유지코자 제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대 띠편성을 시도하여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다.</p> <p>다시 보고 싶다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꾸준하여 5,6월에 재방송을 할 예정이다.</p> <p>엔딩 부분에 다음 예고편을 담지 못한 점은 여러모로 아쉽다. 앞으로는 개선하겠다.</p>			

	<p>냈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 많은 자료 화면들을 인용 할 수 밖에 없었던 점과 시대에 걸맞지 않는 듯한 화면이 자주 등장한 부분이다. 하나 더, 3일 연속 방송이라면 일일 연속극 처럼 엔딩 부분에 다음 예고편을 담았으면 연결점을 더 부여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김학선).</p>			
<p>보도</p>	<p>대전MBC특집다큐멘터리 오래된 미래 작은학교에서는 소규모학교통폐합정책으로 인한 작은학교들의 통폐합이 단지 숫자로만 평가되어지는 경제적효율성을 중요시할 것인지 교육복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생각해 보면서 단지 통폐합의 문제만이 대안이 아닌 마을과 학교가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작은학교에 대해서 시청자로서 몰랐었던 문제점과 앞으로 고민해야 될 점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1부 보다는 2부에서 조금 더 우리나라의 작은학교들이 통폐합이 아닌 마을과 함께 노력하여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예산지원의 문제 인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의 사례 중 미국과 일본만 1,2부에서 볼 수 있었는데 유럽 등 다양한 나라에서의 좋은 사례들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마지막 엔딩에 밝은 음악과 함께 ‘학교는 ○○○이다’ 라는 멘트가 작은 학교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한다면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주는 것 같아 좋았고 성우 목소리가 편안하고 지루하지 않은 목소리라 좋았다(강은혜).</p>	<p>예산상의 한계로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담지 못했다. 지역사회를 위한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p>		
<p>보도</p>	<p>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다른 대선과는 달리 대선 준비기간이 짧아, 각 후보들의 대선공약도 잘 보이지가 않고, 특히 지역별 공약의 경우에는 더욱 보이지 않는 게 특징이다. 이런 뚜렷한 대선공약과 특별한 지역별 이슈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전mbc 시사토론m(4월/11일)에서는 각 대선 후보들의 지역공약 검증에 다루고자 “대선후보, 지역공약 검증”편을 마련하였다. 우리 지역 즉, 대전·세종·충남에 기반을 둔 대전mbc의 우리 지역에 대한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토론이라 우리 지역에 대한 공약</p>	<p>헌정사상 유례없는 조기대선이 실시되면서 대선주자들의 경쟁은 어느 대선보다도 뜨겁다. 쫓기는 대선 시계에 매달리는 탓에 지역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검토할 시간조차 태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과 구속, 세월호 선체인양 등 전국발 이슈에 묻혀 지역공약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들을 재탕, 삼탕 하는 수준의 지역공약도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조차 없어 '뜬구름 잡기'식이라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각 후보별 공약을 살펴보고 지역현안사업이 대선공약에 반영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p>	<p>○</p>	

	<p>은 무엇이고 과연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 여겼다.</p> <p>우선 이날 진행을 살펴보자. 주요 대선공약으로 외교·안보분야, 경제관련분야, 재벌개혁·검찰개혁분야, 교육문제분야를 다루고 나서 그 다음으로 지역 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덕특구, 원자력 시설문제를 다루었다.</p> <p>시간 배분을 살펴보면 전체 48분 중 32분 정도를 주요 대선공약으로, 16분 정도는 지역공약을 다루었다.</p> <p>첫 번째, 토론의 내용과 시간배분을 놓고 본다면 이날 시사토론m의 토론 주제는 “대선후보, 주요 대선공약과 지역공약 검증”이 맞았다고 본다.</p> <p>두 번째, “대선후보, 지역공약 검증”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자 했다면 우리 대전·세종·충남에 대한 각 지역별 공약을 더 살펴보고 그에 대한 시간배분을 더 늘렸어야 했다고 본다.</p> <p>세 번째, 시기적으로 방송한 4월 11일을 기점으로 본다면 이때에는 각 대선후보별 지역공약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라 지역공약을 주제로 다루기에는 좀 이르지 않으나 생각한다.</p> <p>향후에는 토론 주제에 맞는 내용과 이에 맞는 시간배분을 고려해 주었음 한다(장백기).</p>	<p>위해 마련한 시사토론 프로그램이었다. 지적한 토론 배분 문제는 유념하여 제작에 임하겠다. 사전에 보다 더 정밀하게 구성을 잘 짜서 패널과 MC가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간안배를 잘하여 전하도록 하겠다.</p>			
<p>교양</p>	<p>“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매일 아침 다양한 지역축제의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또 여러 지역의 먹거리와 지역특산물, 그 지역의 향토적인 음식을 알 수 있어 좋고 꼭 한 번 가보고 쉽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과 따뜻한 미담을 보며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p> <p>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다문화계층들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p> <p>다른 방송과는 달리 날씨정보를 처음 부분에 알려주는 것이 좋게 보인다(정철상).</p>	<p>‘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대전MBC 교양, 정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제작진이 ‘항상 새롭고 시청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모토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지역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더 정진하겠다.</p>			
<p>교양</p>	<p>“허참의 토크&조이”는 진행자들의 부드러운 진행이 돋보이고 각 회마다 지역의 명사들을 초청하는데 역사학자 김상웅 선생이 출연(4월 23일)하였다. 최근 불고 있는 역사열풍에 대한 질문을 하고 ‘숫자로 보는 프로필’이라는 코너로 흥미롭게 인물에 대해 소개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p>	<p>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자막방송을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 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수화·자막방송은 현재 모든 프로그램에</p>		<p>○</p>	

	<p>나라 여타 프로그램도 수화통역사가 방송에 없어 장애인들이 시청을 하기에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본다(정철상).</p>	<p>서 시행하고 있으면 단말기가 내장된 모니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화면해설 방송은 현행 10%정도 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p>			
<p>보도</p>	<p>뉴스 영상에서 음성변조와 영상 바이라인 처리 등에 관해 논의를 해 보겠다. “공터에 버려진 여행용 가방에서 여성 시신 발견”의 cctv화면을 보면 대전mbc가 직접 입수한 것인지, 경찰서에서 제공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 자막 표기가 없다. 누가 자료를 제공했는지 표기가 필요하다.</p> <p>또한 뉴스 영상물에는 담당 취재기자 외에 영상취재00, 편집00, 그래픽00 와 같이 담당직군의 이름을 병기하는 것이 영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p> <p>가방 안 시신발견 영상을 보면 경찰 관계자의 “웃 입은 채 그대로 가방에 있었는데..”는 음성변조 처리가 된 반면 이웃주민의 “그렇게 사람이 놓고 가더라...”는 음성변조 처리가 없었다.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음성변조를 하는 것이 맞다.</p> <p>보도 영상물에 대한 나름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이승선).</p>	<p>앞으로 화면 출처 고지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 추가 지적사항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p>			
<p>교양</p>	<p>지난달에 금강보호캠페인의 내용 문구에 대해 지적을 했다. 바로 수정 조치하여 금강보호캠페인이 방송되고 있다. 내용도 우수하다. 피드백이 원활하여 좋다(이상진).</p>	<p>시청자위원들의 좋은 지적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p>	○		
<p>기타</p>	<p>대전MBC와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높이고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MBC <나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활약 하고 있는 웹툰 작가 “기안84”를 섭외해 투표왕이라는 선거 홍보캠페인을 선보이고 있다.</p> <p>방송툰! 방송(broadcasting)과 웹툰(webtoon)의 합성어로 대전MBC가 TV PR 에 새롭게 선보이는 포맷으로 알고 있다.</p> <p>특이하고도 궁금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찾아보니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홈페이지 등에 이에 대한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성정모).</p>	<p>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송툰에 대한 반응이 좋다. TV방송 이외에도 대전MBC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지역사 언론매체에도 알리어 홍보를 하였다.</p>	○		
<p>교양</p>	<p>노래를 가지고 한국현대사를 살펴본 ‘노래로 본 한국현대사 3부 전편’을 시청하였다. 1부만 보면 다소 혼란스러웠는데 3부까지 보니 노래를 가지고 한국 현대사를 조명한</p>	<p>‘노래로 본 한국현대사’ 3부작은 대중가요를 통해 들여다 본 시대상 고찰이다. 주로 가요 위주로 구성했는데 60년대 팝의 전설 ‘비틀즈’를 프로그램 앞부분</p>	○		

<p>것이 쉽지 않을 텐데 잘 만든 다큐멘터리라고 본다. 흠이라면 70년대 대학가요제를 언급하다 갑자기 60년대 비틀즈를 언급하여 시대적 흐름에 역으로 흘러간 점이 아쉽다 (정민근).</p>	<p>에 구성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제작진이 판단했다.</p>			
--	-----------------------------------	--	--	--